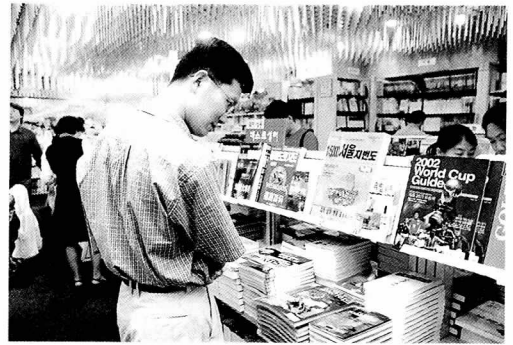


출판계는 월드컵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출판계와 월드컵의 상관관계



한 대형서점의 축구관련서 코너.

‘월드컵 특수’ ‘중국 특수’ 등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출판동네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인 듯하다. 월드컵 기간 동안 신문과 텔레비전이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면서 독서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월드컵 전후로 요즘 가장 호황을 누리는 아동출판을 **출간 일정 조정하기도** 살펴봐도 시간 중수가 줄고 있다. 서점 관계자들은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해서 나온 신간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 대신 이미 펴냈던 책에 장난감을 덧붙여 내놓은 게 많이 눈에 띈다”고 말한다.

월드컵 등 국가적 이벤트가 벌어질 때 가장 크게 영향 받는 분야는 베스트셀러 비중이 높은 대중소설과 비소설류다. 기타 경제 관련 유행 도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지적 오락을 표방하는 역사서, 기행서 등도 몸을 사리고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시류를 타지 않는 고전류, 전공서, 전문서, 아동학습서 등을 월드컵 기간에 출간하는 소극적 경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나 ‘월드컵’을 주제로 월드컵 특수를 노린 기획 출판물들도 예상외로 적다. FIFA 월드컵 관련 출판물 독점출판사로 선정된 중앙M&B는 지난해 5월부터 《2002 World Cup Guide》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공식가이드》 등 5종의 월드컵 안내서를 시중에 내놓고 있다. 이 책들을 기획한 이성구씨는 “4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10개 도시 대형서점을 순회하며 월드컵 사진전시회를 열고 있다. 스타 플레이어의 격렬한 몸동작을 잡은 사진들을 대형 사이즈 액자에 넣어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시회를 통한 판매효과는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전해왔다. 그 외 월드컵 관련서들은 축구스타의 삶을 조명한 《펠레》(로버트 L. 피시, 유혜경, 미다스북스), 《홍명보, 나카타 TOGETHER》(고단샤, 컬처라인) 등이 있고, 인문교양 차원에서 접근한 《축구 전쟁의 역사》(사이먼 쿠퍼, 정병선, 이지북)도 최근 출간됐다. 나머지는 ‘월드컵 비화’ ‘축구 여행’ 등 가벼운 읽을거리들이 개정판으로 출간되는 정도다. 어린이를 위한 월드컵 안내서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 책이 월드컵 덕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홍명보, 나카타 TOGETHER》를 펴낸 컬처라인의 최진영씨는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드컵 관련 경품행사에 참가하는 등 마케팅을 펼쳐봤지만, 축구공 같은

다른 경품에 밀려 거의 효과를 못보고 말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월드컵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더난출판사의 이 흥 편집장은 오히려 “이벤트나 시류에 한번 휩쓸리다보면 출판사 내부의 기획 흐름이나 판매 흐름이 깨지는 경향이 있다”며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는 월드컵 뒤에 대선이 도사리고 있어, 월드컵이 진작시켜 놓은 축제와 여흥의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월드컵 이후 활황 경제경영서, 실용서 출판사들은 오히려 **노린 책들 기획 활발해** 려 월드컵이 끝난 후 나타날 경제적 상승효과를 노리는 기획물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책들, 해외여행 가이드북, 요리와 취미 등 실용성 위주의 도서들이 월드컵 이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이렇듯 월드컵 기간 동안 출판시장은 중수와 매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이 스포츠를 속도감 있게 재현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 그렇다. 한편,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기간에 인쇄·출판 업체들에게 작업중단 또는 작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나서 입맛을 씹쓸하게 하고 있다. 이유는 휘발성 VOC(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해 오존 발생을 줄이자는 건데, 인쇄업계는 “인쇄시설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첨단화돼 있어 소음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VOC 배출량도 미미해 지장이 없다”며 서울시의 요청이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판계의 소극적인 태도도 아쉬움을 남긴다. 축구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나서는 곳은 실용서 출판사밖에 없다. 그것도 월드컵 기간 동안의 ‘반짝’ 판매를 노린 책이 대다수고 정보성에 그쳐, 지속적으로 읽힐 제대로 된 축구 교양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에 나온 《축구 전쟁의 역사》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출판 편집자 사이트인 북에디터(bookeditor.org) 게시판에 올라온 이 책 번역가의 글을 보면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그는 “월드컵을 자축할 요량으로” 지난해 중순경 이 책 번역을 끝냈지만 그가 문의해본 “약 40군데 정도의 출판사”가 모두 “스포츠북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축구가 ‘보는 것’일 뿐, ‘읽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준다. —강성민기자